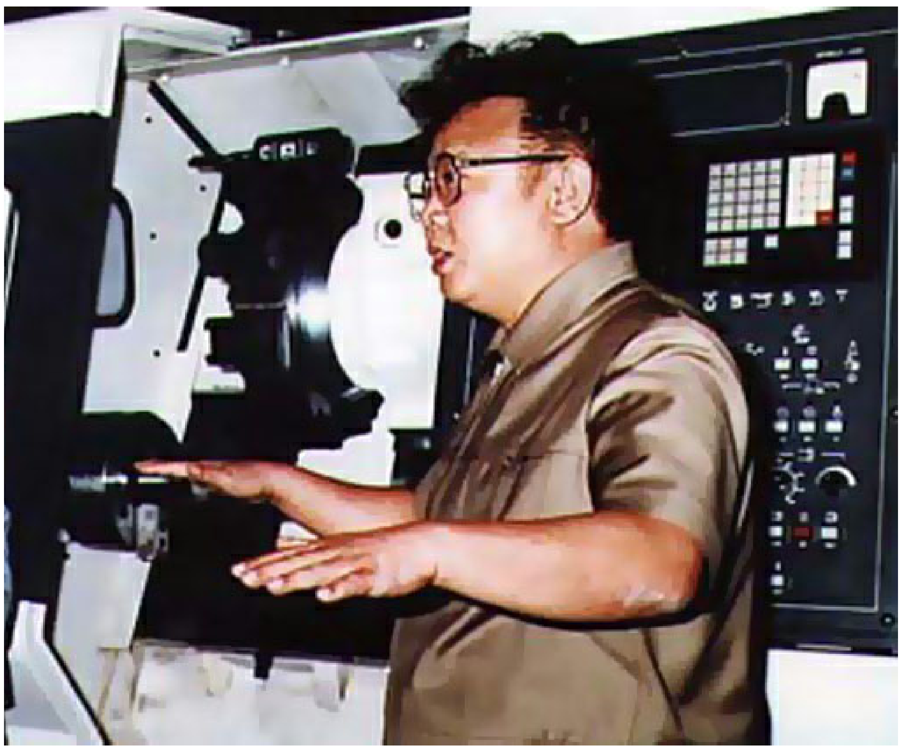
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32호 - 주체91(2002)년 5월 16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총비서,
과학원 컴퓨터과학연구소에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공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과학원 콤퓨터과학연구소에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를 보내시였다.

과학원에 첨단과학연구기지를 훌륭히 꾸려 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보내신 과학연구설비에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 져 있다.

전달모임이 13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와 관계부문 일군들,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2002/05/14 조선중앙통신

우리 제도제일주의와 정보산업의 발전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공동사설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올해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우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며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면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가 정보화되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넣는것이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중요과업으로 되는것은 우선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이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지금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에 토대하여 생산력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높아 지고 경영활동의 과학화, 합리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 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더욱더 지능로동에 의하여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있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은 인간의 생산활동과 사회활동은 물론 가정생활의 모든 분야에 급속히 침투되고 있으며 그 리용범위는 날을 따라 확대되여 가고 있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환경에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서 주도적부문, 핵심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빨리 발전시켜야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킬수 있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넣는것이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중요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날로 악랄해 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정보기술독점≫과 경제의 ≪세계화≫책동을 짓부시기 위해서이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서 노는 중요성으로 하여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인재를 육성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앞선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과학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예속시키려고 교묘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인재를 쟁탈하는데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시키는 부르죠아가치관과 반동문화를 전파시켜 그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분야에서 날로 악랄해 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빨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서도 결정적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이 발전할수록 자본가계급과 근로인민대중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산업의 발전이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주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또한 우월한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실시되여 나라의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부문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우월한 교육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결정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최단기간내에 우리의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을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선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을 국가의 가장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틀어 쥐고 이 분야들의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받들고 이 부문의 우수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분야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이 곧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분야들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할것이다.

노동신문 사설
주체91, 1월 18일

2 종합
- 선군정치는 위력한 정치방식
-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
- 미국을 5.18시민법정에 세우자
- 국보법은 인터넷대화도 엿본다
- 차경애를 무조건 석방하라
- 국보법폐지 연행자석방!
- 아직도 꿈속을 헤메고 있는가 국정원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6 세기와 더불어
- 8장 4절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논함(1)

8 칭송
- 뉴욕에 울려퍼진 불멸의 송가
- **김일성**주석님은 인민의 어버이

9 노동신문 정론
- 영원한 심장의 노래(1)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현실체험과 혁명실천을 통해 위대한 혁명가의 품격 갖추시다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5.16쿠데타 뒤에는 미국 있었다
- 이회창 유권자 환심 사기 위해 비열하게 책동
- 단결과 노동운동
- 노동자의 본떼를 보여주자
- 태양찬가 속에 우리는 산다(2)

14 투쟁보도
- 사이버 ≪옥석논쟁≫, ≪옥풍≫되나
- 전농 ≪통일쌀≫ 출항식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10)

선군정치는 위력한 정치방식

14일부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정치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자주적인 정치방식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 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군정치는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혁명적인 정치방식이다.

자위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권리이다. 강력한 군력을 떠난 자위란 있을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간섭과 침략행위는 극도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혁명하는 당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총대를 튼튼히 틀어 잡아야 한다.

선군정치는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정치방식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빼앗고 그들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려 한다. 이런 조건에서 나라를 보위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선군정치를 해야 한다.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그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인 정치방식이다.

론설은 제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사회주의나라, 진보적인 나라들이 실시하는 국방중시정책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배치되는것처럼 사실을 외곡하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사회주의하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이 자기 나라를 보위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총대를 떠나서 나라의 안전, 인민대중의 안녕과 자주성도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2002/05/14 조선중앙통신

핵미싸일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차관보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나 미싸일을 수출≫하는 ≪우려대상국의 하나≫라고 줴쳐 댔으며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라는 자도 우리의 ≪위협≫에 대처한 보다 발전된 미싸일요격체계를 운운해 나섰다.

14일부 ≪민주조선≫은 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모해하려는 속 검은자들의 얕은 술책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싸일문제를 철저히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다. 우리의 미싸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며 입 삐뚤어 진 소리를 줴쳐 대는것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불순세력들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손 쉽게 이루어 보려고 고안해 낸 여론조성을 위한 거짓선전이다.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전파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걸고 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핵미싸일위협은 명백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처하여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것이다.

2002/05/14
조선중앙통신

미국을 5.18시민법정에 세우자

아픔을 씻는데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민중의 마음속에 커다란 피의 응어리로 자리잡은 광주의 원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광주대학살만행이 저질러진지 22년이 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얼마전 이 땅에서는 5.18시민법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이 단체는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을 세계앞에 다시한번 명백히 밝히고 앞으로의 미국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5.18시민법정을 개최할 목적으로 조직됐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지역의 5.18관련단체들과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연합 등 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였습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5.18시민법정추진위원회의 결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시민의 힘을 모아 광주학살의 주범인 미국을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학살만행의 실태를 은폐, 왜곡하고 있는 미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후 5월 18일 광주 도청에서 5.18시민법정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향 각지의 민중들은 미국을 5.18시민법정에 세우려는 시민단체의 의로운 행동에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보내면서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피바다로 잠근 근본 장본인이 미국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사실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광주봉기는 애국시민들의 울분의 표출로써 그들의 지향은 자주, 민주, 통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식민지지배통치의 위구를 느낀 1980년 5월 22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당시 미국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등이 참가한 비상회의를 열고 광주애국시민들을 폭로로 몰아붙이는 폭언과 함께 봉기자들을 무쇠주먹으로 다스려야한다는 폭언을 했고 광주봉기진압에 주한미군을 출동시킬 흉계까지 꾸몄습니다.

이런 흉계밑에 항공모함 ≪코럴시호≫를 축으로 한 미사일구축함 두척과 순양함, 보급함 등 7척으로 구성된 기동타격군을 ≪한국≫ 주변 앞바다에 투입시키고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미드웨이≫호와 공중경보통제기 ≪E3A≫ 2대를 ≪한국≫주변에 파견했습니다.

1996년 2월말 연합통신이 워싱턴에서 전한 소식에 의하면 광주사태시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위컴은 한 정치석상에서 자신이 ≪한국군≫ 20사단의 광주투입을 승인하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사태당시 주한미대사로 있었던 글라이스틴은 1985년 5월 17일 ≪아사히≫신문 워싱턴특파원과의 회견 석상에서 ≪유엔군의 지휘하에 있는 제20사단을 광주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워싱턴에 보고하고 허가했다. 위컴은 나의 동의를 얻어 가장 잘 훈련된 ≪한국군≫ 20사단을 계엄군의 임무지로부터 광주로 파하도록 허락했다. 위컴이 나와 함께 검토했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나는 부대이동전에 이 사실을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파쇼계엄군을 대학살만행에로 내몰데 대한 미국의 흉계가 광주봉기폭발전에 꾸며진 사실도 폭로되였습니다.

미국신문 ≪저널 오브 커머스≫ 1996년 2월 27일부가 전한데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벌이고 있었던 반파쇼민주화투쟁이 봉기에로 발전할 것을 감촉한 서울주재 미국대사는 광주봉기가 터지기 7일전인 1980년 5월 7일 미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에서 신군부를 사촉해 시위진압경찰병력을 군병력으로 증강, 교체할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후 이틀후인 5월 9일에는 자기의 이러한 의도를 미행정부가 승인하였다는 것을 ≪한국≫당국에 직접 통보했습니다.

미제살인귀들은 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육만행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써 파쇼광들을 광주대학살만행에로 추동했습니다. 광주사태의 목격자들인 미군평화군 성원들이 광주봉기가 한창일때 미8군소속 헬기들이 광주상공에 나타나 주민들이 모인 장소들에 기총사격을 가했다고 폭로한 사실은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광주학살의 초단계에서부터 모든 작전들이 미국에 의해 발기되고 그들의 배후조종하에 감행됐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대학살만행이 있은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광주학살의 배후조종자로써의 공개사죄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으로 일축해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한국인≫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라고 하면서 마치나 저들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민단체들은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맺힌 광주의 원한을 풀기 위해 5.18시민법정을 열고 광주대학살만행을 배후에서 조종한 미국의 죄행을 온 국민과 세계앞에 밝히며 광주학살에 관여한 미국살인마들을 처벌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경향 각지의 민중들도 미국을 5.18시민법정에 세우기 위한 시민단체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동참해 광주학살에 관여한 미국정부와 미군살인마들을 심판대에 끌어내어 준엄한 징벌을 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4일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 · 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광범한 내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전 씨가 본인의 과거 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논쟁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전 씨가 1999년 9월 재판 당시 작성한 최후진술문을 문제삼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99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러한 전 씨의 전과는 사면됐고 집행유예 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다.

또 경찰은 월간 잡지 ≪열린 주장과 대안≫, ≪다함께≫에 실린 글들이 ≪국가 변란을 선전 ·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가 기고한 글은 △병역 비리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과 △업톤 싱클레어 소설 ≪정글≫에 대한 서평이다.

인터넷 ≪다함께≫ 성공회대 카페에 올린 △부시방한 반대 글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세미나 발제문 △매주 작성한 집회 일정과 집회 참여 권고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서의 집회는 공개리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 설치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모두 첨부돼 있었다고 전 씨는 변호사와의 접견 과정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최후진술문이나 다른 사람과의 논쟁글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검증,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가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헤집고 이를 하나씩 분석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일정을 공고하는 것까지 국가 변란을 선전 · 선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처럼 현재 경찰은 전 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기소 내용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전 씨의 집시법 위반의 증거로 지난 해 2월 24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전 씨에 대한 사진 채증을 위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따지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찰의 사진 채증 문제를 재판 과정에서 제기할 거라고 밝혔다.

현재 전 씨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이주영 기자
2002/05/15 인권하루소식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가, 국정원

시대착오적인 국정원의 ≪안보 백일장≫ 개최 소식을 접하고

국가정보원이 ≪5 · 16 ~ 6 · 15간 국가안보와 대공신고를 주제로 ≪사이버 안보 백일장 · 사생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백일장의 내용은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간첩신고를 강조하는 표어 및 그림일기(작문포함)≫ 이고, 사생대회는 ≪간첩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간첩 · 간첩선 식별요령을 소재로 한 만화(1~4컷) 및 플래쉬 동영상 ≪ 등을 응모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말에는 시비를 걸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국정원이 하는 짓을 보면, 어쩜 과거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왕짜증≫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6 · 15공동선언≫에 의거하여,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여 가까운 몇 해 안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통일을 하자고 굳게 약속한 ≪6 · 15시대≫ 아닌가 말이다.

이러한 때에 북측을 염두에 둔 그따위 치졸한 안보 백일장이란 것을 벌려 간첩을 신고하자는 둥 간첩선이 어떻다는 둥 떠벌리며 안보콤플렉스를 자극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이런 짓이 남북관계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이는 한마디로 북을 자극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든 남북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밥 그릇≫을 지켜보려는 얄팍한 수작이라는 것을 이젠 삼척동자라도 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위하고 전쟁의 비극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인간백정 살인마 집단 전쟁미치광이 미제 침략자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일을 ≪음지≫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호시탐탐 전쟁의 구실을 만들어 칠천만 우리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미제 침략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안보고 뭐고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제 침략자 주한미군의 반세기 지배역사에서 수도 없이 보아 왔지 않은가.

국정원은 시대착오적인 그따위 안보 백일장 놀음을 당장 집어치우고 주미철본의 이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거하는 해 2002년 5월 15일
리인수 공동의장

차경애를 무조건 석방하라

우리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 할 것에 대한 5개조항의 공동선언문이 채택 발표되던 날의 감동과 지지의 물결이 얼마나 거대하였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정권이 들어서서 북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며 급기야는 올초 이른바 악의축 발언을 계기로 적대정책은 그 극한 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과 5월 각 임동원 특사와 박근혜의원이 방북하고 휴전선을 통한 귀환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어느 나라 기구인가?

대체 얼마나 많은 애국자를 잡아 가두는 반통일. 반민족의 죄를 저지를 것인가?

최근 미국 부시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한 보수수구세력들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편승하며 이를 양대선거에 이용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불어 정세는 반통일이 아닌 통일로, 분열이 아닌 민족대단결로 나감에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해 가고 있는 국정원이 더러운 생존을 위해 지난 5월 13일 오후 6시30분 단국대 졸업생 차경애씨를 구속. 체포. 구금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전 국민과 전세계의 양심들이 지켜보고 있다.

차경애씨를 즉각 석방하라!

국정원의 더러운 존립 근거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죄악의 국정원을 해체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02년 5월 14일
새 세기 민주노동청년회

국보법폐지 연행자석방!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3일 차경애 씨(단국대 93학번)가 북을 찬양하는 글을 통신에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에는 전지연 씨(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민주노동당원)가 월간 ≪다함께≫에 기고한 글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들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임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악용하여 지난 기간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여온 악법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 어떠한 정부비판적 언행도, 이북바로알기식의 선전행위도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참신한 사고는 억제되어 왔으며, 심지어 작가들은 자기검열로 인한 창작의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권에 의한 표현의 자유통제는 최근에는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사상통제를 받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인터넷 관련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에 ≪북한사랑≫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재윤 씨 사건, ≪범민련전사≫라는 카페에 올린 글들을 문제삼아 구속된 이성우 씨 사건, 그리고 위의 두 사건.

이 모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통제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는 통제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숭상하는 정권이라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진정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연행자를 석방하고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2002년 5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1. 3대혁명의 빛나는 승리(2)

2) 사상, 기술, 문화혁명에서 이룩한 성과(2)

화학비료와 살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약이 많이 생산공급되여 지난 해에 논 밭 정보당 화학비료 시비량은 1.5톤에 이르렀으며 화학적 방법으로 김을 잡은 논 면적은 전체 논 면적의 97%나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지난날 손으로 모를 내고 김을 매며 힘들게 일하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일을 헐하게 능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것은 7대 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려성들의 가정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 마음놓고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여러 가지 편의봉사시설을 대대적으로 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식료가공 공업과 일용품 공급을 빨리 발전시켜 주식물과 부식물 생산을 늘이고 여러 가지 현대적인 부엌세간과 가정용품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녀성들은 부엌일과 잡다한 가정일의 부담에서 답이 벗어나 집단적인 로동 생활과 여러가지 사회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힘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 제5차 대회가 내놓은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빨리 장성하였으며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한층 더 튼튼하여졌습니다.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는 데 따라 인민경제의 기술장비가 현대화되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비상히 높아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생산적 앙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당 제5차 대회가 내놓은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 고지는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는 제2차 7개년계획 수행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 나갔으며 새 전망 계획의 3년분 과제를 이미 올해 9월 말까지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결기간 공업부문이 매우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1970년~1979란 사이에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해마다 15.9프로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여 공업 총 생산액은 3.8배로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3.9배, 소비재생산은 3.7배로 늘어났습니다.

공업의 부문 구조를 완비하고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총결기간 공업부문 앞에 나선 중심적인 과업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 잘 완비하며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공업을 건설하는 원칙에서 공업부문들을 보강하고 새로운 공업부문을 많이 창설하였습니다.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현대적인 제철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콕스 생산에서 나서는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열간 압연기지와 랭간 압연기지를 새로 건설하고 2차 금속가공 제품 생산기지를 많이 꾸려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금속공업은 모든 생산부문들이 잘 갖추어진 완비된 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화학공업의 부문 구조가 더욱 완비되였습니다. 아닐론공업, 플리에틸렌수지공업, 린비료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부문들이 많이 창설되고 이미 있던 화학공업 기지들이 정비보강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은 여러 가지 화학 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총결기간 공업부문들의 생산 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력 생산 능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가 빨리 발전하는 데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화력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수력 발전소들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총결기간 큰 규모의 화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됨으로써 전력 생산 능력이 훨씬 늘어났으며, 특히 화력 발전 능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70년~1979년 사이에 화력 발전 능력은 2배로 늘어나 우리 나라 총 발전 능력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연료 자원과 수력 자원에 기초한 자립적인 동력 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석탄과 여러 가지 광물 생산 능력이 빨리 늘어났습니다. 채취공업을 가공 공업에 앞세울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대규모 탄광, 광산들과 중소규모 탄광, 광산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미 있던 탄광, 광산들이 개건 확장되여 석탄과 쇠돌, 여러 가지 유색 금속 광물 생산 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원료, 연료 기지가 더욱 튼튼하여졌습니다.

세멘트 생산 능력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300만 톤 능력의 현대적인 순천 세멘트 공장과 많은 중소규모의 세멘트 공장들이 건설되고 새로운 소성 방법이 널리 적용되여 세멘트 생산 능력은 총결기간에 2.2배로 늘어났습니다.

경공업 토대가 한층 강화되였습니다. 큰 규모의 방직 공장들이 건설되고 곡산공장, 식료 가공 공장, 신발 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많이 건설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의 경공업은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공업부문들의 기술장비가 전반적으로 훨씬 개선되였습니다. 이미 있던 기계 공장들이 정비 보강되고 새로운 기계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였으며 특히 공작 기계 생산기지와 대상 설비 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그리하여 20메터 대형 선반, 자동 선반과 반자동 선반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작 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공급하였으며 발전소 설비, 금속공장 설비, 세멘트 공장 설비를 비롯하여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의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 보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화 요소와 계기, 기구 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여러 가지 자동화 수단 생산이 빨리 늘어났습니다.

총결기간 농업 생산에서 커다란 앙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농업 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 전선의 하나로 내세우고 농업 발전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당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주체농법을 창조하여 농업 생산에 널리 적용하였으며 한랭 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불리한 자연 기후 조건을 이겨내고 농업 생산을 안전한 토대 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고 한랭 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실현됨으로써 농업 생산의 모든 부분이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알곡 정보당 수확고가 논벼는 7.2톤, 강냉이는 6.3톤에 이르렀으며 지난 해에는 900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알곡생산과 함께 남새 생산, 담배를 비롯한 공예 작물 생산도 빨리 늘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축산업 발전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와 로동자 구들에 현대적인 돼지 공장과 닭 공장, 오리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원종장들이 잘 꾸려졌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의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나라의 농촌경리가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 우에 올라서고 농업 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장성한 것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을 실증하여 주는 빛나는 승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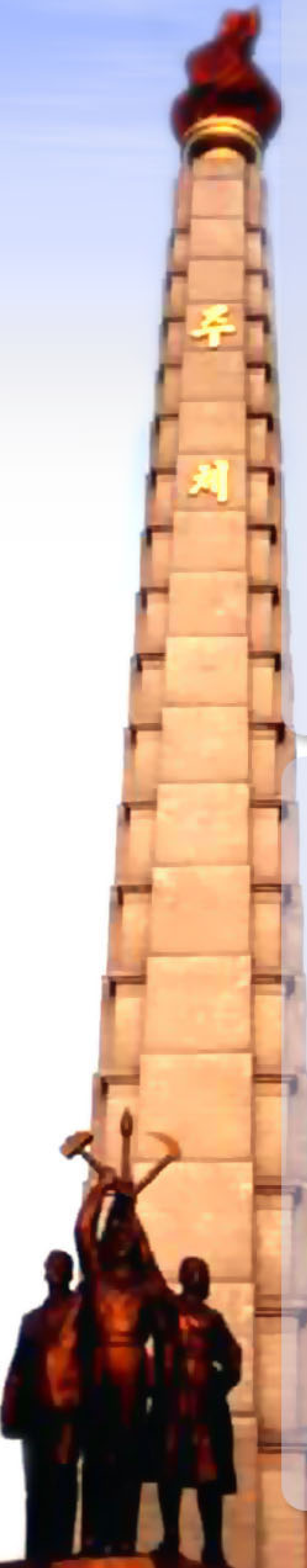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운수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수송 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총결기간 새로운 철길이 많이 건설되고 철도전기화가 널리 실시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동서부를 련결하는 이천-세포 사이 철길을 비롯하여 새로운 철길이 많이 건설되였으며 1, 600키로메터 이상의 철길 구간이 새로 전기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기기관차에 의한 견인 비중은 87.5%에 이르렀으며 지선인입선을 포함하여 중요한 철길 구간들에서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 수송체계가 훌륭히 실현되였습니다. 큰 짐배들을 많이 무어내고 남포항과 청진항, 해주항을 비롯한 여러 항들을 현대적으로 꾸림으로서 배 수송을 대대적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운수 부문에서 수송 조직이 개선되고 수송 지휘 체계가 현대화되였습니다. 집중 화물역들과 역 구내선이 많이 늘어나고 기술역과 조차장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졌으며 큰 공장, 기업소들과 중요 지역들에 대한 집중 수송 체계가 섰습니다. 철도와 자동차, 배에 의한 련대 수송이 발전하였으며 집합 수송이 널리 진행되였습니다.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원료난, 연료난으로 하여 생산이 떨어지고 물건 값이 뛰여오르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파동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결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문화혁명을 중요한 투쟁 과업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교육 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교육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 교육 사업과 민족간부 양성 사업에서 커다한 전변을 가져왔습니다.

총결기간 교육 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인테리 대군을 마련하여 민족간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제5차 대회가 내세운 과업에 따라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과 고등 전문 학교들의 교수교양사업을 개선하고 양성 규모를 늘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들에 대학을 새로 많이 내오고 고등전문학교를 대대적으로 늘였습니다. 당이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총결기간에 대학은 129개로부터 170개로 늘어났으며 481개의 고등 전문 학교가 새로 나왔습니다.

교육기관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교육의 질이 끊임없이 개건됨으로써 해마다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당 제5차 대회에서 내세운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7만 명 이상으로 늘일 데 대한 방대한 목표가 이미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되였으며 민족경제와 과학, 문화 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 당이 키워온 주체형의 인테리들은 지금 40대, 50대의 씩씩한 일군들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테리대군은 앞으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사업에서 더욱 큰 은을 낼 것이며 조국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빛나는 위훈을 떨칠 것입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 데 따라 의무교육 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으며 1975년부터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새 세대들은 모두 다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완전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였으며 중등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것은 훌륭한 공산주의적 시책입니다. 총결기간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미 있던 탁아소, 유치원들이 더 잘 꾸려짐으로써 온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게 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제도는 어린이 보육보양법이 마련됨으로써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어린애들은 세상에 태여난 날부터 국가의 법적 보호 밑에 현대적 시설이 갖추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 영양 관리와 사회주의적인 교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마련하여 놓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과학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 나라 연료에 의거한 주체적인 야금법과 새로운 주물 방법을 발명하였으며 대자연 개조 사업에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는 합성고무공업과 새로운 화학섬유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성공하였으며 농작물의 육종 방법과 재배 방법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수많이 해결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숨은 영웅들이 많이 나온 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문학예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 로동과 새 생활 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의 대 전성기였습니다.

총결기간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 왔으며 텔레비죤 방송출력이 더욱 늘어나고 텔레비죤수상기가 많이 생산 공급됨으로써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현대적인 극장, 문화회관, 체육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인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있습니다. 농촌빠스화, 농촌수도화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농민들의 생활상 편리를 더 잘 도모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생산문화가 높아지고 도시와 농촌이 아름답게 꾸려졌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낡은 생활습성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사회의 생활양식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민보건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과 의료봉사사업이 훨씬 개선되였으며 도시와 군 소재지의 병원들이 더 잘 꾸려지고 농촌진료소의 병원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보건정책과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이 믿음직하게 보호증진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평균 수명은 해방 전에 비하여 35년이나 늘어나 73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며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념원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2)

소비에트노선이 정권건설 분야의 좌경이었다면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발로된 좌경적 사상경향이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매개 군인이 상하가 없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의주장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군사행동의 모든 면에서 지나친 평균주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절대화하는 사상이다.

유격대오 안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감촉한 것은 남만진출을 끝마치고 왕청에 돌아와서 유격대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때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편향은 시초적인 것으로서 크게 후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동녕현성전투를 마치고 왕청에 돌아와 유격대의 사업을 요해하는 과정에 우리는 싹에 불과했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군대 안의 지휘체계에 침투하여 그것을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알리는 첫 경종은 1933년 가을 훈춘현 대황구에서 울렸다.

대황구는 훈춘의 중심유격구로서 국제당파견원 반성위가 박두남에게 피살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했던 훈춘유격대의 용사들 중 13명이 한꺼번에 무리로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 동만 인민들의 비분을 자아냈다.

라자구에서 전투총화를 마치고 유격구에 돌아온 훈춘동무들은 어떤 외딴집에서 잠시 노독을 풀며 추석명절을 쇘다. 추석을 쇤 다음다음날도 그들은 보초를 세우고 진종일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 비밀을 내탐한 일본수비대가 밤중에 그 외딴 집을 포위하고 불의에 달려들었다.

이런 전투정황에서는 적의 약한 고리를 치고 포위환 밖으로 재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자면 지휘관이 정황을 똑똑히 포착하고 제 때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오를 책임진 중대장에게는 결론권이 없었다. 일행중에는 오빈과 같은 유능한 군사지휘관도 있었으나 현당군사책으로 일하다가 좌경바람에 대원으로 강직된 그의 말은 날이 서지 않았다.

오빈

그 당시 상급당 조직의 지도부에 앉아 있던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에게 군사문제에 대한 결론권을 주지 않았다.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반드시 회의에서 토의되여야 하며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결정되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였다. 이 주장은 군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되여 지휘관들의 손발을 꼼싹달싹할 수 없게 비끄러매놓았다. 지휘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곳은 무능의 탓이 아니라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중압으로부터 온 기능마비의 병폐였다.

적들이 총대를 꼬나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여드는 죽음의 대문 앞에서도 그들은 적과 싸울 것인가, 포위를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터무니없는 논의만 거듭하였다. 창발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일부 대원들이 공론만 하다가는 다 망할 수 있으니 일단 싸움부터 시작해놓고 보자고 제기하였으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회의결정도 없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 하면서 그 제의를 일축해버렸다.

이것은 사실 포위속에 든 유격대를 파멸에로 이끈 범죄적인 자살행위였다. 토론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적들은 습격을 개시하였다. 그 순간에야 유격대원들은 회의를 중지하고 비로소 싸움을 시작하였다.

빗발처럼 날아드는 적탄은 13명의 유격대원들을 전투서열에서 제거하였다.

시체더미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몇 사람뿐이였다. 그 중 한 사람이 오빈의 유언을 받고 왕청에 찾아와 나에게 13용사의 희생과 관련된 전말을 빠짐없이 말해주었다.

전사한 13명 가운데는 백일평도 있고 오빈도 있었다.

훈춘에서 온 대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시체더미를 헤치고 있을 때까지 복무에 관통상을 입은 오빈은 창자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마지막 숨을 모아쉬며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나는 지금 동무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소. 그러나 당원으로서 부탁하는 것이니 오늘의 이 사실을 **김일성** 동지에게 꼭 보고해주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제창자들과 그것을 전투실천에 맹목적으로 적용한 교조주의자들을 저주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장애가 아니였더라면 훈춘중대 동무들은 제때에 포위망을 돌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13명의 희생이라는 비참한 상실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13명은 모두가 동녕현성을 치는 싸움에서 우리와 생사를 같이한 잊지 못할 전우들이였다. 우리가 전투를 끝내고 동녕현성에서 철수할 때 방차대에 망라되였던 훈춘동무들은 왕청부대가 싸움을 참 본때있게 하였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나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나를 목마에 태워주기도 하고 머리 위에 추어올리기도 하였다. 희생된 전우들의 추도식을 할 때에는 엉엉 울면서 추모연설도 하였다.

그처럼 불같은 열정과 사랑을 지닌 사나이들이 하룻밤사이에 모두 고인이 되고 말았다니 억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 13명 가운데서도 오빈은 가장 잊지 못할 전우였고 동지였다. 그는 우리가 육읍지구를 개척하는 과정에 채수항의 소개로 친교를 맺은 사람이였다. 채수항이 용정에서 대성중학교를 다닐 때 오빈은 거기서 동흥중학교를 다녔다. 이 두 학교는 다 사회운동자들과 독립운동 인재를 키워낸 중요한 온상이였다. 그들은 용정에 있을 때 학생운동도 함께 하였다.

오빈은 채수항과 함께 우리가 주최한 공수덕회의와 겨울 명월구회의에도 참석하여 무장투쟁방침을 세우기 위한 문제토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오빈과 채수항이 나를 종성으로 안내한 것이 아마 1931년 5월일 것이다. 종성은 채수항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그들과 함께 밀선으로 두만강을 건너 신흥촌이라는 곳에 첫 자욱을 짚던 때가 어제런 듯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는 버들방천을 물들이는 신록의 아름다움과 고색창연한 옛 성터의 정취를 가슴 설레이는 신록의 격정속에 받아들이며 조국의 미래를 두고 많은 말을 나누었다.

나는 그 해 봄에 신흥촌 북문밖에서 종성반제동맹 책임자로 일하는 오빈의 아버지 오의선도 만나보았다. 연길현 차조구라는 곳에서 소작살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아들이 직업적인 혁명활동의 길에 나선 후 가족을 데리고 신흥촌으로 이사하였다. 오의선의 집은 미구에 왕청지구의 반일인민유격대와 종성군 안의 모든 지하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이어주는 비밀연락처로 되였다.

내가 신흥촌에 갈 때마다 오빈의 집에서는 국수를 누르

대황구 유격구역

곤 하였다. 우리는 1933년 5월 단오도 이 집에서 쇘다. 그때 오의선은 30리나 되는 풍계장에까지 가서 메밀가루를 사다 평양 냉면 맛이 나는 국수를 눌러 우리의 점심상에 놓아주었다.

그 단오날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물고생을 많이 하는 오의선의 가족을 위해 그 집 뜨락에서 샘줄기를 찾아주고 박우물을 만들어주던 일이다. 나는 그때 훈춘땅에서 무장투쟁에 전심하고 있는 오빈을 대신하여 아들된 심정으로 부지런히 삽질을 하였다.

동녕현성전투를 앞두고 라자구에서 오빈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5월 단오날 신흥촌의 아버지가 눌러주던 메밀국수 이야기를 하였다. 오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내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훈춘땅에서 군사책으로 활동하다가 대원으로 강직된 때였지만 그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 하지 않았다.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빈을 고무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생기발랄한 인간으로 남아있소. 군사책이 대원으로 된다고 해서 오빈이 김빈이나 박빈이 될 수야 없지. 그렇지만 훈춘에서는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소. 동녕현성전투나 끝나면 상급에 제기해서 왕청으로 갈까하고 궁리하는데 대장 동무의 의견은 어떻소?≫

≪오빈이 왕청에 오면야 나도 좋지. 그렇지만 오빈에게 ≪민생단≫ 감투를 씌울 수 있는 좌경분자들은 왕청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나의 대답이었다.

≪그럴까?≫

≪왕청이라고 해서 좌경바람이 약한 것은 아니오.≫

≪그래도 대장 동무의 곁에 가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구만. 하여튼 나는 왕청으로 가고야 말겠소.

소왕청 유격구역

오빈은 일구이언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빈은 서산포대를 점령할 때 작탄을 품고 앞장에서 용감하게 돌격로를 헤쳐나갔다. 그의 이 공적은 전투총화에서 응당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화를 끝내고 부대들이 라자구에서 서로 갈라질 때에도 오빈은 자기의 결심을 재차 표명하였다. 왕청에 오려는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그는 동녕현성전투 때 왕청 동무들이 서산포대를 점령하고 성시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결심이 더 굳어졌다고 말하였다.

물론 나는 협력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오빈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왕청으로 날아온 것이다. 봄에는 이광이 갔고 여름에는 반성위가 그렇게 속절없이 사라졌으며 오늘은 오빈이 그렇게도 바라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오빈을 포함한 13용사의 최후에 대한 비통한 소식은 나에게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최후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전율에 가까운 감정으로 역겹게 대했으며 어떤 경우에나 그런 요소가 대내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처럼 큰 혐오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반대한 것은 그것이 혁명실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사상경향이라는 데 있었다.

우리는 지금도 군사작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서 토의하는 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이 당조직을 통하여 군사작전 수립에 반영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집체성이 부대관리를 책임진 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일전쟁 초 시기의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집체성의 명목밑에 지휘관의 권한을 침범하였으며 부대관리와 군사작전에서 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

그 당시 군대안에서는 군사작전을 세우거나 전투를 할 때 당원들의 창발성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소조회의, 지부회의, 각급 위원회를 비롯한 당회의도 열고 오늘날의 군인총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전대회의도 열었다. 그것도 정황조건을 고려한다는 원칙에서였다.

그런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나폴레옹 법전처럼 절대시하고 있던 좌경분자들은 모든 군사문제를 그 대소와 정황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각급 당조직과 전대회의들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혁명군이 어느 한 도시를 칠 계획이라면 먼저 당소조회의를 진행한다. 진공한 도시의 이름은 비밀에 붙이고 그 도시형태를 약도에 그려놓은 다음 이 성시를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이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토의결정한다.

소조회의에서 전투를 해야 할 필요성과 승리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작전방안이 세게 되면 또 지부총회에서 동일한 문제를 놓고 꼭같은 방식으로 토의를 반복하며 그 방안을 거수가결로 결정한다.

다음 공정은 전대회의이다. 전대회의에서 토의되는 내용과 순차도 소조회의나 지부총회와 다름이 없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비당원 군인들도 문제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ㄱ이라는 도시를 치려 한다. 이 도시를 치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손실은 없을 것이고 희생은 적을 것이다. 작전계획은 여사여사하다. 이 계획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그러면 전투명령을 하달하고 ㄱ도시로 진격해나간다.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갑작스레 의제를 설정해놓고 여럿이 모여앉아 필요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는 하자 하지 말자, 된다 안 된다, 이길 수 있다 없다는 식으로 끝없는 논쟁이 펼쳐지곤 하였다. 군사민주주의의 덕으로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개개명창이 되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논쟁은 무한정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사이에 적정에는 변화가 생기고 각급 회의들에서 모처럼 토의 결정된 작전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곤 하였다. 설사 그 방안대로 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혁명군은 정황조건의 변화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13용사의 희생은 가져온 혁명군대안에서 민주주의 코를 걸고 지나친 평등주의와 평균주의를 부르짖는 것이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관할하는 부대에도 없지 않았다.

어느날 나는 현당군사책 김명균과 함께 1중대의 사업을 요해해보려고 병실로 찾아갔다. 그날 병실 주변에서는 중대장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중대정치지도원이 대원들과 함께 나무를 패고 있었다.

상하일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광경앞에서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명균 군사책은 웬일인지 얼굴빛이 냉담하였다.

≪지휘관들이 저렇게 이신작칙을 하니 눈맛도 좋구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군사책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왕이면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마당을 쓸어봅시다.≫

나는 마당 한쪽 구석에 나뒹구는 빗자루를 잡으려고 병실쪽으로 향하였다.

그러자 김명균은 나의 군복소매를 뒤고 슬그머니 잡아끌었다.

≪내 이제 기막힌 장면을 하나 보여주겠소.≫

그는 풍기사령에게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곧 불러오라고 명령하였다.

풍기사령은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금은 아침 청소시간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불러오라면 불러올 게지 무슨 잔말이오!≫

군사책의 입에서는 대뜸 욕지거리가 튀어나왔다.

풍기사령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전대회의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나는 풍기사령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김명균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중대장이나 정치지도원도 인격상으로 대원들과 동등하니 대원들이 청소를 할 때에는 상관도 만사를 제쳐놓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라우.≫

이것은 아직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시초 단계에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은 맹목적인 평등사상은 그 후 유격대의 군사실천에까지 부식되어 일정한 기간 그 지휘체계를 마비시켜놓았다.

물론 모든 사람, 모든 군인은 인격상으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일유격대나 오늘날의 인민군대와 같은 혁명군대에서는 매개 군인들에게 그가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분공을 주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대장의 분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대장의 모자를 씌우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대장의 일을 시킨다.

수행하는 임무와 분공에 따라 혁명군데 안에는 상하관계가 있게 된다. 중대장은 소대장의 상급으로 되고 소대장은 분대장의 상급으로 되며 분대장은 대원들의 상급으로 된다. 혁명군대의 군사복무조례는 하급은 상급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것이 없이는 군대를 지휘통솔할 수 없고 군대의 강철같은 규율을 유지할 수 없다.

(내일 계속)

뉴욕에 울려퍼진 불멸의 송가

미국 뉴욕의 이름있는 ≪머르킨음악극장≫에서 1999년을 맞으며 신년대음악회가 수천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었다.

대음악회에서는 불멸의 태양찬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격동의 도가니속에 연주되었다. 이 음악회에는 미국≪서울교향악단≫이 출연하였으며 세계적인 유명음악가 재미교포 이준무씨가 지휘하였다. 소개말이 끝나자 객석은 삽시에 흥분의 파도로 설레였다.

요란한 박수갈채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이윽고 노래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장내는 금시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장엄한 태양이 솟는가, 대지의 천만꽃도 춤추며 설레는가, 7음계가 생겨 언어와 붓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온갖 오묘한 감정과 정신세계를 황홀하게 그려냈다.

이렇듯 장엄하고 숭고하고 위대한 선율을 들은 적 있었던가.

이 세상 모든 유명무명의 노래여, 선율이여, 음악이여 무색하여라!

노래 속의 노래가 여기에 있다.

선율 속의 선율이 여기에 있다.

음악 속의 음악이 여기에 있다.

불멸의 태양찬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울린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영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낙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연주가 끝났다. 순간 폭풍같은 환호가 장내를 진감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경탄의 목소리, 열광의 박수갈채…

열정의 땀으로 푹 젖은 지휘자 이준무씨의 두볼로 격정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 이 순간을 위해 나의 음악이 있었구나. 이 순간을 위해 내 지금껏 살아왔구나!)

이준무씨는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그러나 가난한 탓으로 나이가 들어서야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후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국립교향악단에 들어갔으나 민족의 얼이 사라지고 왜색양풍이 난무하는 이남에서는 참다운 음악을 할 수 없었다. 그는 1972년 처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 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잡일을 하면서 음악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에 살아도 민족의 넋을 지키리라는 결심밑에 ≪서울교향악단≫이라는 악단을 조직하고 1년에 5~6회정도 정기연주회도 했다.

그러던 그는 이북음악을 접하면서부터 새로운 음악세계에 빠져들었다. 민족의 정서와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에 매혹된 그는 이북음악연주에 온 넋을 쏟았다.

1989년 이북의 노래를 공연할 때 반공파들의 위협공갈로 갑자기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무대를 떠나가 버렸다.

불가피하게 이씨가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지휘자로서의 걸음을 내짚게 되었다.

이준무씨가 음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된데는 기이한 인연이 있었다.

어렸을 때 그는 고향마을을 해방한 인민군대로부터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애국가≫를 배웠다. 국민학교교원을 할 때 평양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키우게 되었다. 그후 미국에 간 이씨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세계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놈들의 코를 꿰어 끌고다니면서 쥐락펴락하시는 것을 보고 통쾌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김정일**장군께 마음속 깊이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렸다.

특히 돌보셔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신 장군께서 음악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민족음악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공헌을 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어 그분을 칭송하는 송가 음악연주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준무씨는 장군의 탄생일을 비롯한 여러 기념일들에 장군께 축전을 올리고 대표부를 통하여 성의껏 마련한 꽃바구니도 드리었다.

1998년 새해를 맞으면서도 **김정일**장군께 자신의 진정을 담은 소박한 편지도 올렸었다.

≪오늘 이곳 ≪뉴욕타임스≫에 실려진 장군님과 조국에 관한 기사를 읽고 저의 큰아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최강이라는 미국과 대등하게 외교를 펴나가며 요구를 모두 관철해내는 것을 볼 때 조선의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는 조선보다 더 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조선은 당당합니다. 나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찬 것을 보면 장군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지극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조국이 장군님을 모시고 우뚝 서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장군님의 탁월한 조국통일경륜과 민중을 사랑하시는 자애로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위대한 품, 청아하고 살기 좋게 발전시켜 놓으신 조국의 산천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이역만리에서 살고있으나 햇빛같은 장군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햇빛 따사함을 받습니다. 해님을 보는 해바라기같이 조국의 통일과 발전을 위하고 장군님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장군님,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승리하는 조선의 새해가 되길 빕니다.

재미교포 이준무 올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9년 5월 이북을 방문한 이준무씨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장군께서는 이준무씨가 재미동포들 속에 민족문화예술보급활동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야금, 소해금, 장고 등 필요한 민족악기들과 그 교측본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동포사회에 공화국을 바로 알리려는 그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하기에 이준무씨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간절한 염원이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부디 잘 모셔주십시오. 장군님만 계시면 조국은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더불어 세계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구국전선 주체91, 5월 11일

김일성주석님은 인민의 어버이

평범한 시민

주체(1972)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출근길에 오른 평양시민들이 무궤도전차정류소에 길게 늘어 선것을 보시고 오래동안 빼스통과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리고 무궤도전차의 정시운행에서 빈틈이 생긴 원인을 알아 보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 주시였다.

이렇듯 주석께서는 몸소 출근길의 평범한 시민이 되시여 인민들의 교통상 불편까지 헤아려 보시였다.

무상으로 받아 안은 솜옷

주체52(1963)년 12월 어느한 산간마을을 지나시던 주석께서는 솜옷을 입지 못하고 노는 아이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였다.

그들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시던 주석께서는 평양에 돌아 오신 즉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시고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솜옷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전쟁사에 없는 구출작전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11월 주석께서는 한 인민군전사가 적후에 있는 가족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그 전사로 말하면 한달동안에 5대의 적 비행기를 쏴 떨군 영웅이였다.

주석께서는 영웅의 얼굴에 그늘이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짜주시였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려 올 때 집에서 쓰던 농쟁기며 비자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 오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작전수행에서는 한개 련대가 동원되였다.

영원한 심장의 노래

≪로동신문≫ 정론 - 주체91, 1월 7일

백두산장군의 심장의 메아리인 위력한 혁명군가와 함께 새해의 진군이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월 5일 2002년 새해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관람하신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은 온 나라에 뜨거운 격정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새해의 첫 걸음과 함께 우렁차게 울린 군단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혁명군가의 합창은 위대한 장군님의 신년사와 같이 우리 인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 잡고 있으며 원쑤의 아성에 날아 가는 강위력한 ≪미싸일≫의 집중포화와 같이 온 지구를 또 한번 들었다 놓았다.

그 어떤 요란한 리론도, 품을 놓고 앉아 받는 수개월간의 강의도 이 짧은 공연이 주는 감흥에 비할바가 못된다.

제국주의자들의 허장성세도 이 한순간의 공연으로 물거품이 되게 할수 있고 온갖 시련과 고난도 이 장쾌한 군가로 쳐몰아 낼수 있다.

오늘 공연은 대단히 훌륭했다고, 공동사설의 기본정신도 여기에 다 있다고, 자신께서도 학습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공훈합창단의 노래에는 우리 당의 력사, 공화국의 력사, ≪고난의 행군≫의 력사가 담겨 져 있다고 그처럼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우리 장군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근위가수들이 부르는 혁명군가는 어디서 들어도 좋고 아무때나 들어도 좋은것이지만 21세기 두번째 해의 첫 진군길에서 들으니 더욱 힘이 나고 용기가 솟는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불 타는 충성의 신념과 혁명적정서를 방사포의 뢰성처럼 가슴 후련히 울린 신년경축공연무대에서 만장을 격동시킨 한편의 노래가 있었다.

가요 ≪영원한 심장의 노래≫,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승리해 온 긍지 높은 력사와 위대한 장군님 따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해갈 확고한 신념을 담아 부른 이 노래,

심원한 혁명의 진리가 풍만하고 열정적인 선률속에 장중하고도 절절하게 울리는 이 노래를 우리 장군님께서는 재청하여 들으시였다.

가장 숭엄하고 진실한 사상감정이 용암처럼 분출하는 이 노래로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사이에는 참으로 뜨거운 심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우리의 근위가수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강적이 달려 들고 천만시련이 또 앞을 막아도 오직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기발을 끝까지 들고 싸워 갈 전체 군민의 신념을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열렬히 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의 진리가, 인민의 심장의 맹세가 울리는 이 노래를 참으로 커다란 감흥과 류다른 격정속에 들으시면서 그 어떤 광풍이 불어 와도 백두의 붉은기를 끝까지 휘날려 갈 의지를 또 한번 억세게 가다듬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군대와 인민앞에 말없는 혁명의 선서를 다지시고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앞에 억천만번 싸워 이길 필승의 신념을 군가로 터친 이 화폭,

혁명의 수령과 인민의 심장을 울리는 노래에는 시대의 근본정신, 근본지향, 근본숨결이 맥박친다.

수령결사옹위,

이것은 21세기에도 우리의 진군길에 영원히 높이 울릴 조선의 신념, 위력한 승리의 보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입니다.≫

격렬하게 흘러 간 20세기 마지막년대도 수령결사옹위로 빛내이고 반만년민족사에 없었던 영광과 존엄을 떨친 21세기의 서막도 수령결사옹위로 열어 제낀 우리 인민은 이 세기의 두번째 해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라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진다.

얼마나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신념인가.

이 정신은 심장의 열과 고동으로써만 그 세계를 다 안을수 있고 오직 순결한 심장의 무게로써만 그 울림의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있다.

≪고난의 행군≫의 사선천리를 영웅적으로 돌파하고 강성대국의 진격로를 열어 놓은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새로운 비약의 출발선에 선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을 가장 격렬하게 분발시키는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조국방선에서 멸적의 총검을 우스러지게 틀어 잡은 최고사령관의 병사들의 심장에서 뜨겁게 울려 나오는것도 이 웨침이며 새 세기 진격의 봉화를 지펴 올린 라남의 로동계급과 강성대국 총 진군길에 오른 이 나라 전체 인민의 발구름소리에서 울려 나오는것도 이 정신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새해의 벽두에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장군님께 온 나라 인민을 대표하여 뜻 깊은 새해의 전투적인사를 올리는 최대의 영광을 지니였던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계급은 지금 끝 없는 격정에 휩싸여 있다.

자나깨나 그리던 어버이장군님을 새해에 처음으로 뵈온 감격의 그 시각 더욱 정력에 넘치시고 환해 지신 장군님의 태양 같은 모습에 환희와 격동의 눈시울 적셨던 한 로동자는 불덩이 같은 가슴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때 장군님만을 사무치게 그리며 풀죽을 먹고 추위에 떨면서도 기관차를 만들던 그 나날이 떠올라 눈물이 핑 고여 올랐습니다. 장군님만 계시면 두려운것 없고 장군님만 옹위하면 우리는 이긴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수령결사옹위!

이것이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마음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위대한 시대정신, 조선의 목소리이다.

장군님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마음 다지면 원쑤의 아성에 한몸이 육탄이 되여 날아 갈 멸적의 투지가 펄펄 끓어 오른다.

이 신념 한번 가다듬으면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 오르고 장군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부강조국의 성돌이 될 의지가 용솟음친다.

이 신념은 무적의 총검이다.

오늘 날이 갈수록 오만무례하게 날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혁명의 원쑤들에게 죽음과 공포를 주는 무자비한 폭탄도 바로 이 정신이며 세계자주화의 붉은 노을이 지구를 덮을 광명한 미래를 가장 확신성 있게 내다보게 하는것도 다름 아닌 이 기개이다.

수령결사옹위,

여기에는 백두산민족의 승리의 력사,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피줄기가 용용히 굽이치고 있다.

항일의 피어린 그날을 그리면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투사들의 웨침이 백두밀림에 메아리치고 전후의 난국을 헤치던 그날을 생각하면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강철전사들의 웨침이 이 땅에 메아리쳐 온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수령의 손길로 개척된 혁명일뿐아니라 수령을 결사옹위해 온 위대한 인민의 충성의 력사로 빛나고 있다.

저 눈 덮인 백두밀림의 설레임소리가 귀전에 울려 온다.

붉은기 날리는 사령부를 지켜 결사옹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며 혈전의 만리길을 폭풍치며 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위기일발의 순간 ≪사령관동지≫라고 웨치며 온몸으로 수령님을 밀막아 서며 싸창을 뽑아 들어 적들에게 불벼락을 퍼부은 대사하치기의 총성이며 고난의 행군시기 밀림이 찌렁찌렁 울리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위하여 추상같이 웨치던 잊지 못할 청봉의 이야기가 소리쳐 온다.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사령부를 지켜 일제의 대군을 뒤에 달고 하루에도 수백리 눈길을 달리며 결사옹위의 나팔소리를 쉼없이 울린 오중흡7련대의 그날의 행군길과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자기의 혀를 끊은 열혈투사의 비장한 최후가 세기의 언덕을 넘어 다시금 우리의 심장을 쾅쾅 두드린다.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1950년대의 시대정신이 그대로 맥박쳐 울리는 이 구호,

수령옹위정신을 피줄기로 이으며 피 어린 조국수호, 천리마대고조의 1950년대가 흘러 갔다.

한줌도 못되는 종파나부랭이들을 전기로속에 처박아 던지고 강철로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자고 불덩이같이 웨치며 천리마시대의 발단을 열어 놓은 강선의 기수들,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라는 가장 뜨거운 진정의 말씀을 아뢰인 태성할머니, 조선의 아침은 동해에서가 아니라 백두산에서부터 밝아 온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을 안고 수령옹위의 군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힘차게 구가한 충직한 우리 군대…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시원과 전통이 마련되고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멸적의 총검으로 벼려 지고 다져 진 이 정신은 오늘 최고의 열도로 폭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두번 다시 구원된 ≪고난의 행군≫길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은 몇백만톤의 식량을 대신했고 천만대적을 치는 핵폭탄과 같았다.

선군시대를 기적과 위훈에로 빛내여 온 혁명적군인정신도, 조국이 가장 준엄한 역경에 처했던 때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도록 한 강계정신도 다 수령결사옹위정신에서 타오른 시대의 불길이였다.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쑤들이 제일 검질기게 끊어 놓으려고 한것도 수뇌부와 인민의 혈맥이였다.

그러나 공장의 숨결은 멈추어 놓을수 있고 이 땅에 재난을 들씌울수 있어도 금성철벽으로 다져 진 이 나라의 수령옹위의 성새에는 단 하나의 실금도 낼수 없었다.

수령결사옹위,
여기에는 백두산민족의 승리의 력사,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피줄기가 용용히 굽이치고 있다.
항일의 피어린 그날을 그리면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투사들의 웨침이 백두밀림에 메아리치고 전후의 난국을 헤치던 그날을 생각하면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강철전사들의 웨침이 이 땅에 메아리쳐 온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수령의 손길로 개척된 혁명일뿐 아니라 수령을 결사옹위해 온 위대한 인민의 충성의 력사로 빛나고 있다.

(내일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6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14일

현실체험과 혁명실천을 통해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시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실에 대한 체험과 혁명실천을 통해서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벅찬 현실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현실에 대한 체험은 사람의 세계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실에서 무엇을 보고 체험하는가에 하는데 따라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던 시기는 참으로 복잡다단했던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과 광복된 조국에서의 새조국 건설 사업,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헤아릴 수 없는 시련을 겪으시며 그 과정에 싸우는 인민의 정신, 조선의 정신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의 총성을 들으시며 생활의 첫 자욱을 떼셨습니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포연에 절은 옷을 입으시고 원쑤격멸**의 부르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돌격 구령 소리와 함께 성장하신 우리 장구님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가 남다른 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정신적 성장과 감정정서발전에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한 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이였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음마도 떼어주고 목마도 태워주었으며 혁명군 노래도 배워주었습니다. 또, 사령관, 조선, 인민이라는 낱말도 익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배우시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니실 수 있었고 어리신 나이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조숙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광복후 새조국 건설의 격동적인 현실속에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깨달으셨습니다. 광복된 우리 인민에게는 참으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일제 놈들은 41년간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재부들을 약탈해 가고도 모자라 쫓겨가면서 공장을 비롯해서 산업시설들을 파괴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노선을 받들고 부강한 새 나라를 일떠 세우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건국열의로 들끓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낮에 밤을 이어가며 파괴된 공장과 뙈약볕이 내리쪼이는 농촌, 바람세찬 어촌들을 수없이 찾으셨습니다.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어비이 수령님을 모시고 **김정숙** 어머님과 함께 평양과 청진, 남포와 대동군 그리고 나라의 북단 성봉군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와 농촌, 어촌을 찾으셨습니다. 이 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영장하신 현명성과 고매한 인민적 풍모를 가슴깊이 느끼셨고 수령님의 건국노선을 받들어 나선 우리 인민의 건국열의와 불굴의 투쟁모습을 보셨습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주체35, 1946년 여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동군을 현지지도 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어느 한 농촌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이께서는 힘들게 물을 퍼올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려 보시며 빨리 커서 어버이 수령님의 뜻대로 농민들은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실 굳은 결심을 다지셨습니다. 주체36, 1947년 4월에는 어머님과 함께 당시의 평양제사공장에 가셔서 노동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작업장에도 들어가 보시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아픈 마음도 헤아려 보셨습니다. 또, 주체37, 1948년 6월 어느날에는 어머님과 함께 미림골에 나가셔서 모내기를 도우시면서 기계로 농사를 지을 앞날도 그려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국도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그때 나는 전화의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간직할 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 것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나의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시기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이께서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간직할 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 것을 체득하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화의 불길 속에서 무엇을 체득하셨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열렬한 조국애와 승리한 조국의 앞날에 대한 신심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던 시기는 참으로 복잡다단했던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과 광복된 조국에서의 새조국 건설 사업,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헤아릴 수 없는 시련을 겪으시며 그 과정에 싸우는 인민의 정신, 조선의 정신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굳히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39, 1950년 10월 평양을 떠나 삼속, 강동, 덕천, 구장, 희천, 전천, 강계를 지나 자강도 장강군 장자산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장자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린 시절을 보내신 사적지의 하나인 장자산 혁명사적지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평양을 떠나 장자산까지 걸으신 천리 노정은 매우 뜻깊은 노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노정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할아버님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조선 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걸으신 노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이의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배움의 천리길과 광북의 천리길을 걸으신 노정이고 우리 장군님께서 불길 쏟아지던 전화의 나날 걸으신 노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0, 1991년 9월 23일 장자산 혁명사적지를 찾으셔서 장자산 혁명사적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적지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이사적지는 우리 아버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혼산진용 천리길을 걸었고 내가 그 노정을 따라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걸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 그 노정을 따라 혁명의 대를 이어 다녀간 천리의 노정에 있는 뜻깊은 사적지로써 세계에는 아마 이런 사적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신 천리길을 우리 혁명의 영도의 계주봉이 줄기차게 이어진 혁명의 천리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게서는 자강도 장강군 장자산 당시는 솔매골입니다. 장자산에 계기면서 당창건 5돐을 기념해서 동생과 함께 두 그루의 잣나무를 심으셨고 학생 소년들이 한 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전략적 후퇴의 천리길에서 싸우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보시고 전선원호사업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인민들은 고무해 주기도 하셨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는 한 기어이 승리한다는 신심을 굳히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41, 1952년 6월 평안북도를 현지지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수행하시면서 인민군 비행사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전시식량증산투쟁에 일떠선 장살리 농민들의 투쟁을 목격하시면서 그리고 낙원의 열명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41, 1952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최고사령부에 계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영군술과 고매한 풍모 혁명적 낙관주의를 체득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는 우리 인민의 심장이였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였습니다. 최고사령부로는 전선과 후방에서 수많은 인민군 지휘관들과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을 뵙고 수령님의 말씀을 받고 승리의 대한 신심에 넘쳐 따나가군 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과 함께 작전대 곁에서 한밤을 지새우기도 하시고 수령님을 모시고 포연서린 인민군 부대들의 화력진지와 석수 떨어지는 갱도공사장에도 가보셨습니다. 이 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인 지략을 체득하셨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어버이 수령님께 달려 있으며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심장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승리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모셔야 하겠다는 철석같은 결의를 다지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철석같은 신념과 결의를 담아서 주체41, 1952년 8월에 가요 ≪조국의 품≫을 창작하셨고 주체42, 1953년 6월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축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실천을 통해서 혁명가로서의 풍모를 갖추어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0, 1951년 4월 어느 한 농촌마을에 계시면서 마을 학생들로 아동중대를 조직하시고 전선원호사업과 연예선전대 활동을 활발히 벌리셨습니다. 그이께서 조직하신 아동중대는 과외학습과 가창대 활동 최고사령부 보도 듣기 등 학습과 생활을 군대와 같이 째인 규율 속에서 진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학생들 속에 전투적인 구호도 제시하셔서 그들은 학습전투에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1, 1952년 12월에는 ≪오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쑤를 갚자.≫, 주체42, 1953년 3월 4일에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시고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소년단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일찍이 10대에 갓 들어서는 어리신 나이에 거창한 사회적 변혁과 준엄한 혁명실천 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헌신적 복무정신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16쿠데타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

우리 민중은 41년전 이 땅에서 비등된 민주와 자주, 조국통일열망을 총칼로 무참히 짓눌러 버린 5.16쿠데타를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군사파쇼도당이 ≪국가재건≫과 ≪부정부패척결≫의 간판을 내들고 감행한 5.16쿠데타는 전적으로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였다.

미국이 이 땅에서 5.16쿠데타를 일으켜 민간통치를 군사파쇼철권통치로 바꿀 계획을 한 것은 이승만을 장면으로 갈아치운 뒤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이 계속 식민지통치가 파멸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민중 속에서는 당시 4.19과정에 움트기 시작한 반미기운이 자라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추세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60년 7월부터 우리 민중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양키들은 물러가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등의 반미, 자주통일구호를 외치며 연일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벌였다.

이에 극도로 당황한 미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상대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5.16쿠데타로 장면을 제거하고 저들이 다년간 길들여 온 박정희를 권좌에 올려 앉혀 군사파쇼통치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해 보려고 했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케네디는 주일미대사였던 라이샤워로부터 ≪한국의 미래를 계승할 사람들은 전쟁의 마당에서 자라난 새로운 젊은 군인들이다≫라는 건의를 받고 군사쿠데타계획을 시급히 추진하라는 최종명령을 미중앙정보국 장관 덜레스에게 하달했다.

덜레스는 쿠데타총지휘는 자기와 CIA차관 리처드 비셀이 직접 맡기로 하고 쿠데타현지책임자로는 당시 총리 장면의 정치고문으로 있던 CIA의 이전 한국책임자 도널드 위태커와 주한미8군 정보부장이던 콜을 임명했다.

미국은 쿠데타를 실수없이 진척시키기 위해 군사정변직전 한일양국의 군사지도자들을 오키나와에 모여놓고 군사쿠데타에 관한 강의를 주었다.

미대통령 케네디는 한국에서 준비중인 군사쿠데타 ≪R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인준했다.

≪R계획≫이란 4.19한돌과 관련한 ≪4월위기설≫을 무난히 넘기기 위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였던 매그루더와 주한미대리대사인 마샬 그린이 모의해 세웠던 ≪비둘기작전≫이라는 비상군사훈련에 편승해 정변을 일으키기로 한 쿠데타계획이였다.

미국은 이 계획에서 첫단계로 제6관구사령부휘하의 5개 헌병중대를 동원하고 둘째단계로 여기에 해병 제1여단, 제30, 제33예비사단 및 특전단의 병력을 투입증강하며 셋째단계로 일선지대에서 1개사단내지 3개사단의 보병역량을 더 밀어넣기로 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이한림 제1야전군의 반발을 막기 위한 사전대책을 주한미군사령관 매그루더가 직접 맡도록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국군 제506특무대를 위시한 일련의 군방첩대와 수사기관들에 쿠데타와 때를 같이해 민주애국세력을 철저히 진압할데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령을 사전에 주었다.

쿠데타의 현지책임자였던 위태커는 61년 5월14일 아침 10시부터 약수동근처에서 40여명의 행동부대책임자들의 최종회합을 진행한 후 쿠데타를 명령했다.

61년 5월16일 박정희반란군은 ≪비둘기작전≫훈련을 빙자해서 서울시내 요소요소를 점령하고 범죄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5.16쿠데타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매그루더는 쿠데타군에 대한 이한림 제1야전군 사령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직접 그를 찾아가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것도 미덥지 않아 미군병력을 미아리계선에 진출시켜 제1야전군의 서울진공을 막을 작전적 조치까지 취했다.

그리고 5월18일에는 위태커 자신이 장면을 보고 ≪사임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강박했다.

결국 60년 8월23일 집권했던 장면은 미국이 조종한 박정희의 61년 5월16일 군사쿠데타에 의해 교체되었다.

5.16쿠데타가 미국의 각본과 지령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64년 5월3일 당시 미국 CIA장관 존 알렌 덜레스는 BBC TV에 나타나 ≪내가 재임중 CIA해외활동에서 제일 성공한 것은 한국의 군사쿠데타였다≫고 증언했다.

NHK TV를 통해 일본전역에로 중계된 방송프로에서 덜레스는 계속해 ≪비록 CIA가 쿠바에서는 실패했지만 한국에서는 보기좋게 성공했다는 것을 미국국민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부언했다.

61년 8월23일 주한미대사 버거는 미국무장관 러스크에게 박정희를 미국으로 초청해야 할 이유에 관해 이렇게 구술한 바 있다.

≪미국은 군사정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내에서 박정희의 권한을 강화시켜 줄것임, 이것은 박정희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러움≫이라고 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5.16쿠데타의 장본인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때로부터 한국민중은 장장 18년간 박정희군사파쇼통치하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은 5.16쿠데타 이후에도 저들의 대한식민지통치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주구들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유지해 왔다.

오늘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배와 내정간섭을 더욱 횡포무도하게 자행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한국민의 의사와 염원을 거역하고 이회창과 같은 친미반통일세력들을 부추기면서 16대 대선에 간섭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중은 미국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 누가 대통령이 되도 민중이 바라는 자주, 민주, 통일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미자주화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상진 - 구국전선
주체91, 5월 11일

이회창, 유권자 환심 사기 위해 비열하게 책동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된 이회창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서 오는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지난 11일 아침, 서울 서진구등 재활용품선별장을 찾아가서 환경미화원들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서민들과 친숙한 영상심기에 나섰는가 하면 매스컴을 통해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밝히면서 국민들을 기만우롱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앞으로 20년동안 매년 6%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겠다느니 국민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느니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노사관계문제를 공정하게 펴겠다느니 하는 등 국민들의 귀맛을 돕고 있는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을 분격케하는 행태라 하겠어요. 평소에 국민들, 특히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 좋은 소리 한마디라도 했다면 몰라도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오늘까지 민족과 민중을 배신하고 사대매국행위 등 못된 짓만 해온 이회창이 국민들이 원치않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어 서민흉내를 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그의 언행을 좋게 볼 수 있고 그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대선후보경선이 시작되기 며칠전까지만해도 이회창이 임금인상과 주5일근무제의 실시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만하면서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탄압해야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국민복지개선을 위한 똑똑한 대안도 없이 그저 빈소리로 국민복지를 소란스럽게 떠들어대 국민들의 항의와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 ***.

이회창은 자기가 대권을 장악하면 경제를 도약시키고 20년간 매년 6%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장하겠다고 떠들어대지만 이 공약 역시 곧이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회창이 경제에 대해 생판무식한데다 몇해전 프랑스의 ≪몽드≫지가 표현한 것처럼 그가 이미 종말을 고한 미국식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진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위기와 침체의 근본요인인 경제정책과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의 철폐와 해결없이 매년 6%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되지도 않는 나발을 불어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각계 민중들은 이회창이 민심을 낚아 차기대권을 장악하기 위해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할 공약만 남발한다며 비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미 희세의 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이회창에게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이회창은 더이상 국민들을 기만우롱하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대로 한나라당대선후보에서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각계 민중들은 이회창을 한나라당 대선후보에서 사퇴시키고 정계에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4일

단결과 노농운동

모두가 화합하면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로 뭉쳐지면 힘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 강해지고 강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참으로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봐집니다. 더욱이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보다 우심해지고 그에 편승해 관계당국의 노동운동말살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노농대중으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단결과 노농운동≫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모든 대중운동, 특히 오늘날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운동을 가열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노농운동에서 단결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먼저 단결이 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단결문제는 모든 대중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모든 대중운동에서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특히는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농대중의 투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있은 해남군 농민들의 투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하겠는데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겨울 배추가격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단결의 위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군에서 배추농가는 4천여호인데 이 투쟁에 3천명이상의 농민들이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온 군의 농민들이 하나가 되어 투쟁을 벌인 결과 이들의 요구는 관철되게 된거죠. 비록 첫걸음에 불과한, 그리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지만 뭉치면, 또 뭉쳐서 하나가 된다면 안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겁니다.

사회자 : 단결의 위력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사례이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단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결을 마련하자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규 : 우선 노농대중에게 단결의 필요성을 잘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모두에게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또 강요되는 부당한 희생과 부담을 물리치면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대중운동을 통한 투쟁뿐이라는 것,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단결에 있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인식시켜야 하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런 면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민영화저지투쟁이 좋은 사례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이 투쟁의 승리는 노동자, 그리고 60만세대 주민들의 단결된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난방이 민영화되면 노동자들만 피해를 당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민영화되면 난방요금 인상은 사측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방은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쓰고 싶으면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무조건 피워야 하는 겁니다. 한겨울에 난방을 안보내면 얼어죽는데 어쩔 수가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도, 심지어는 100%이상, 200%이상 올려도 다 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원리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영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이익을 막아내자면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60만세대 주민이 하나로 단결해서 투쟁할 때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시킨거죠. 결국은 스스로가 힘을 합치게 되었고 단결된 힘으로 투쟁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를 일구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필요성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문제는 단결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되는거죠.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올바른 투쟁구호와 전술을 구사하는 문제 역시 단결을 이루어내는데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아시다시피 구호는 투쟁에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죠. 하지만 그 구호에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의사가 튼튼하게 반영되어 있을 때 그 위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시기 우리 민중의 생존권은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으로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정리해고를 들 수 있죠. 또 이 땅에서 감행한 미군의 만행으로 우리 민중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윤금이살해사건을 비롯해서 한강독극물무단방류사건 등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핵전쟁의 위험으로 우리 민족을 공멸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후 우리 민중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숙원인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임을 똑똑히 알게 됐고 그 과정에 반미의식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의 요청과 민중의 의사를 반영한 올바른 투쟁구호를 내세울때 각계 민중을 반미투쟁에 결속시킬 수가 있는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때 투쟁구호제시문제는 단결을 이루는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회자 :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서는 노농운동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현규 : 직접 자기 자신들이 몸으로 뛰는 고무적인 노력이 필요한거죠.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있거나 일반적인 구호나 외치는 처지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직접 자신들이 근로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 그들이 심장의 문을 열게 되고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단결의 필요성도 인식시키고 주인의 자각을 확립할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로 뭉치게 되고 투쟁에 분기해 나서게 되는거죠.

사회자 : 노농운동가들은 투쟁에서 단결의 필요성을 자기 자신들부터가 올바로 인식하고 오늘날 벌이고 있는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기 위해 단결에 힘써야 할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큰 힘으로 이 땅에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하겠죠.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너무너무 쉽게 흩어지는 강기슭의 모래가 아니라 산기슭의 억센 바위처럼, 그리고 꺾기 쉬운 나무가지가 아니라 들녘의 아름드리 나무처럼 굳세고 큰 힘을 가지려면 단결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3일~14일

노동자의 본때를 보여주자

오늘도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을 아프게 합니다. 더는 살래야 살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우리들의 귀를 멍멍하게 하는데요. 노동대중의 삶이 벼랑끝으로 몰린 이 땅에서 참고 견딘다는 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번엔 서울시에서 살고 계시는 김춘국씨가 보내온 글 ≪노동자의 본떼를 보여주자≫를 임기수씨 소개해 드립니다.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는 노동자들과 그 아들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들의 깊은 한숨과 원망에 찬 한숨소리 얼마나 높은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정리해고의 망령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속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썩어빠진 기득권층와 악덕업주들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너희들이 희생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뻔뻔스럽게 외쳐대고 있다.

아이엠에프의 신탁통치를 불러와 이 땅을 거덜낸 장본인들인 기득권층과 악덕업주들은 노동자희생의 댓가로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구조조정만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떠벌이며 노동자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위정당국과 악덕업주들은 실업자들의 생존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지원도 자원의 낭비일 따름이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고천국과 파견노동자왕국을 건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본가들을 지원해주는 길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이비언론은 노동자 죽이는 반노동자적 경제시책들을 실시해야한다고 열심히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봄철투쟁기에 들어서면서 관계당국과 악덕재벌, 사이비언론의 반노동자적 공세는 더욱 횡포해지고 있다.

일터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력깡패들의 주먹과 공권력의 탄압으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사법당국의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반대, 임금인상 등 생존권쟁취투쟁을 선언해나서자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엄단을 외치며 가차없이 탄압할 것이라고 폭언했다.

이에 발을 맞추어 악덕업주들은 파업에 참가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실업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찌 이같은 현실을 좌시묵과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와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 땅은 결코 근로민중의 사회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층과 극소수 가진 자들의 천국일 뿐이다.

현실은 1300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득권층과 악덕업주들 그리고 모든 반노동자적 무리들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더이상 무력하게 노동의 현장에서 쫓겨나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우리 노동대중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의 착취와 억압속에서 묵묵히 참기만 하던 어제날의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우뚝 일어선 노동해방의 담당자임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노동대중은 오늘의 횡포에 과감히 나서 요구조건을 끝까지 관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머리띠를 더욱 단단히 조여매고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이자. 오늘의 현실투쟁에서 노동자의 본떼를 보여주자. 승리는 단결된 우리 노동형제들의 과감한 투쟁에 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3일~14일

태양찬가속에 우리는 산다(2)

-재미동포음악가 이성씨의 글-

태양의 노래를 울리리라

내 일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있다면 그 첫번째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송가를 접한 것이였고 두번째 큰 행운은 새 세기의 태양찬가를 또다시 받아안은 것이였다.

지금도 나는 1997년 4월 평양방문때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접하여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던 때를 잊을 수 없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영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부르면 부를수록 온몸에 힘이 솟고 위인숭배의 감정이 한껏 부푸는 태양찬가. 백두태양을 우러러 온 겨레와 세계가 터치는 감격의 환호성이 금방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김일성주석님의 위업을 받들어 주체의 낙원을 가꾸시고 자주로 나아가는 세계를 이끄시는 21세기 태양의 거룩한 모습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이미 70년대에 조국인민들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칭송되시며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 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라는 그리움의 송가가 불리우게 하셨던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조선은 또 한분의 위대한 영웅을 낳았다≫는 표제의 글을 특집한 ≪뉴욕타임스≫의 지면을 가족들과 함께 한없는 격동속에 접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우리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조선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마음다졌다. 이북과 적대국인 미국의 언론들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대서특필하는 이 경이적인 사실과 조국방문의 나날을 통해 나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또 한분의 태양을 모셨는가 하는 것을 가슴 뿌듯이 절감하였다.

장군님은 사상도 영도도 덕망도 주석님 그대로이신 새 시대의 태양이시다. 위인은 위인만이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장군님 계시어 주석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내가 아는 위인찬가들은 다 한정된 한 기간에만 촛불처럼 켜졌다 촛불처럼 사라지곤 하였다. 20세기에 울린 위인찬가들인 ≪레닌의 깃발≫, ≪스딸린에게 드리는 노래≫들도 지금은 거의나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조국을 방문하여 알게 된 일이지만 주석님서거이후 5년동안에만도 조국에서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 ≪포전길 걸을때면≫, ≪햇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를 비롯하여 무려 300여편에 달하는 주석님송가가 새로 창작되어 불리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구촌 각국 예술인들이 위인칭송의 마음을 노래로 터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도 주석님서거이후 해마다 계속되어 올해에 와서는 20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가능했다고 본다.

위인은 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그 출중함이 더욱 부각되는 법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이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특출한 위인상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된 것은 공화국이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겪던 1990년대였다.

20세기 마지막 연대에 우리 재미동포들은 매일과 같이 신문과 방송에서 들려오는 북붕괴설에 접하면서 불안과 근심에 찬 눈길로 대양 건너 조국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세상의 우려와 예상과는 반대로 조국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더욱 억세게 일떠서 승리하고 있었다. 흰기를 든 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미국이였다. 쓰러진다던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에로 도약하였다. 미국땅에 어지럽게 나돌던 붕괴설을 순간에 날려보내고 주체조선의 하늘가에 용솟음치며 날아오른 인공위성 ≪광명성1호≫, 그의 발사에 서방은 기절초풍하고 동포사회는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다. 온 지구촌은 부글부글 끓었다. 제노라하는 미국을 통쾌하게 제압하고 그 모진 역경속에서도 기적같이 일떠선 성공의 비결, 나는 그것을 **김정일**장군의 음악정치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북 동포들은 두분의 위인에 대한 태양찬가를 들으며 용기백배 만난을 이겨냈을 것이다.

나는 ******. 내가 유년시절에 받아안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처음으로 맞이한 태양의 노래였다면 인생의 50대에 받아안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갈 21세기의 태양의 노래, 오늘의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김정일**세기의 서곡를 알리는 고고성이였다.

나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노래를 내가 사는 미국땅에서도 울리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조선민족의 한 음악인으로써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런 충동은 미국에서 이북교향악단을 조직하고 북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 ≪내고향≫을 비롯한 조국의 노래들을 형상하여 무대에 올릴수록 더더욱 강렬해졌다.

1998년 12월 6일 뜻깊은 이날에 우리는 미국땅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장군의 노래≫송가음악회를 열었다. 나의 마음은 공연시작전부터 긴장되었었다. 공연반응이 어떠하겠는지. 그러나 막상 공연의 막이 올랐을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뉴욕의 마르틴극장안은 관람자들이 꽉 차있었다. 나는 위인숭배의 격정을 담아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지휘했다.

연주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극장이 떠나갈듯 박수와 환호소리가 터져올랐다. 공연은 끝났어도 사람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비울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장군님의 위인상을 칭송하면서 훌륭한 노래를 지휘해준데 대해 격려하였다.

나는 미국에서 송가음악회가 이렇듯 큰 파문을 일으키리라고는 예상치 못하였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재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여기서 힘을 얻은 나는 그해 12월 16일에는 불가리아의 프라차예술극장에서 1999년과 2000년의 6월과 12월을 비롯한 뜻깊은 계기들마다에 **김정일**장군의 송가음악회를 조직하였다.

미국에서의 송가연주활동은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나날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악단내에서는 동요하는 사람도 적지않았다. 한번은 공연을 시작하려는데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지휘를 포기하는 뜻밖의 일도 있었다. 그때 나는 주저없이 무대로 달려나가 지휘봉을 높이 들었다. 정말 비장한 각오가 온 몸을 휩쓸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총구가 나를 겨누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의 심장을 고동친 것은 오직 하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태양찬가를 높이 울려야 한다는 각오였다.

새 세기 태양찬가의 장엄한 메아리속에 20세기가 저물어가던 2000년 6월 내조국 평양에서는 지구촌에 충격과 감동을 일으키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분단반세기여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평양상봉, 단 55시간만에 세워진 통일이정표, 재미동포사회는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동포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텔레비전화면에 모셔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이였다. 환하신 미소, 위풍당당하신 자국, 활달하고 겸손하신 풍모, 우렁우렁하신 육성을 텔레비전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동포들의 반응은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열광, 바로 그것이였다.

평양상봉은 재미동포사회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조국통일은 장군님의 영도로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었다. 통일은 언제 되는가고 동포들이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

≪통일은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입니다≫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6.15공동선언은 나의 송가연주활동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다.

지난해 6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조국의 음악인들과 함께 우리는 미국의 5개 대도시들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첫 공연이 있은 뉴욕의 링컨극장은 관람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날 우리가 연주한 관현악 ≪조선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녕은 우리의 행복≫, ≪사향가≫, ≪우리는 맹세한다≫에 대한 반응은 대단했다.

경사로운 2월 16일에 로스엔젤레스의 윌셔이벨극장에서 남성독창가수가 ≪정일봉의 우뢰소리≫를 불렀는데 ≪정일봉의 우뢰는 천하가 ***********≫라고 터쳤다. 삼천 객석을 꽉 채운 관중은 장내가 떠나갈듯한 곡조앞에 말그대로 열광으로 화답했다.

어디가나 관객은 차고넘쳤다. 시카고에 갔을 때에는 관람자들이 초만원을 이루어 음악단수행원들의 자리까지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네번째 방문지인 휴스턴에는 동포들이 많이 살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삼천명 객석이 꽉 차있었다. 그것을 보는 나의 가슴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로 꽃피었다.

평양예술단이 마지막 공연을 한 곳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대양을 넘고 대륙을 누비며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컫는 미국의 심장부에까지 왔구나하고 생각하니 격동된 심정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워싱턴에 예년에 보기드문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속을 겨우 뚫고 우리는 공연장소인 조지워싱턴대학극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관객이 찾아올지 걱정했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렇게 쌓인 눈속을 헤쳐 관람객들이 몰려왔던 것이었다. 극장안은 삽시에 동포들로 차고 넘쳤다.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이라 하겠다.

통일을 하자면 천인일색, 만인일색, 7천만 일색이 되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재미동포사회는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민족의 지향이고 역사의 필연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서울의 한 교향악단에서 다년간 바이올린을 연주하였고 미국에서 뭇교향악단을 조직한후부터는 지휘를 하였다. 세계 10대 교향악단의 하나로 2백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지휘단상에도 서 보았고 불가리아 방송교향악단도 지휘해 보았다. 1995년 5월에 있은 국제교향악축전에 초청되어 브람스의 교향곡 2번도 지휘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울린 **김정일**장군의 송가처럼 내 가슴이 격동되고 관객의 심장을 틀어잡은 공연은 경험하지 못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대한 나의 흥분과 관객들의 매혹은 곧 **김정일**장군님숭배의 열풍이였다. 지금도 나는 미국에서 진행한 태양송가음악회들이 단순한 연주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구촌에 메아리쳐가는 **김정일**장군님 제일의 노래소리였으며 세계의 정치중심이 워싱턴이나 뉴욕이 아니라 평양임을 알리는 새 세기 봄우뢰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전역에 폭풍처럼 울려간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조선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와 정의를 안아올 **김정일**세기의 뇌성벽력이였다.

태양찬가속에 날이 밝고 태양찬가로 날이 지던 감동과 흥분의 그 나날 내 인생에 새 삶을 안겨주시고 민족과 인류에게 영원한 봄을 펼쳐주신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송가를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아내가 가사를 쓰고 나는 곡을 지었다. 그 노래가 태양찬가로 장군님을 영원히 받들어갈 우리 가정의 마음을 담아 이번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올린 ≪21세기의 빛나는 태양 **김정일**장군≫이다.

사회주의조선의 주체사상은
민족의 존엄성 굳게 지켰네
영원하리라 사회주의조선
21세기에 빛나는 태양 김정일장군

태양은 영원하듯이 태양찬가도 영원하다. 세기를 이어 부르는 태양찬가속에 겨레의 밝은 앞날, 인류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위대한 태양을 모셔 태양찬가의 조국을 가진 조선민족은 참으로 복받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가고 인류가 가는 앞길에 태양찬가는 천만년 기리기리 높이 울려 퍼지리라.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6일~7일

사이버공간 《옥석논쟁》 선거판 《옥풍》 되나?

김민석-이문옥 지지 논쟁 투표 영향력 주목

《전략적 고민은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 난 무조건 이문옥을 찍을 생각이다.》(아이디 kein)

《옥풍(玉風)이 성공만 한다면 노사모는 노무현과 민주당이란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탈출해 노사모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 시민사회세력이란 이름을 찾을 수 있다.》(아이디 yonghkim)

《이문옥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선택이 다양한 정치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아이디 pwkss)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당내경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노 후보의 팬클럽 《노사모》 내부에서 민주노동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이문옥 전 감사관과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비교하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문옥의 《옥》 자와 김민석의 《석》 자를 따서 이른바 《옥석논쟁》이다.

《옥석논쟁》이란 표현은 이문옥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의 어원이라 할 《옥석을 가리자》에는 돌보다 옥이 좋다는 뜻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옥석논쟁》의 핵심은 노 후보의 대선 당선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인 김민석을 밀어주자는 주장과 정치개혁을 《노풍》을 통해 이루고 있으니 이 참에 《(이문)옥풍》도 만들어 선명한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주장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노사모》가 노무현을 지지하는 모임이지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임은 아니라는 주장과 노무현 지지를 대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대립된다. 《노사모》의 정체성 논쟁도 곁들여져 있는 것이다.

《옥석논쟁》이 벌어지는 곳은 《노사모》 뿐이 아니다. 노무현 후보 공식 홈페이지 노하우, 안티조선 사이트, 그리고 각종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도 등장한다.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볼 때 이문옥 후보가 현실 정치권에서는 아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이버 상에서는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이버 상의 이러한 논쟁에 대해 각 후보 진영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먼저 이 논쟁의 최대 수혜자라 할 민노당 측은 이 논쟁이 현재 2강구도인 서울시장 선거구도를 3강구도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잇따른 게이트 추문으로 인해 현재 유권자들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최우선과제로 삼는 분위기이므로 반부패의 상징이라 할 이문옥 후보가 급부상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민노당 이상현 대변인은 《노사모 회원중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는 비율은 10% 내외일 것》이라며, 개혁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는 노사모의 서울회원들과 노조 등을 규합하여 시장선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문옥 후보는 김민석 후보와 자신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관련하여 운동권 출신인 김 후보가 민주당의 당내 쇄신에서 보인 소극적 모습이나 권노갑 전 고문등과의 관계를 들어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민노당의 한 당직자는 김 후보에 대해 《수구세력과 맞서는 인물이라기보다 영악하게 줄을 선 新수구세력이라 할만한 행보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옥풍이 불어 서울시장선거에서 10%의 득표를 얻어 국민을 놀라게 하면 민노당에게는 사실상 승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만큼은 유권자들이 응급처치가 아닌 보약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김민석 두 후보 진영도 《옥석논쟁》에 민감하다. 특히 민주당엔 일종의 비상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수구 세력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당이 좀 더 큰 방향을 보고 나가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후보의 한 측근은 《이문옥 후보도 자신의 역할을 잘 하리라고 보지만 좀 더 대승적인 견지에서 행동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문옥 후보에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패척결을 김민석 후보가 더 강하게 해낼 것》이라며 김 후보 역시 《반부패》라는 점에서 이 후보에 못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한마디로 《옥풍이 불면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시장자리가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문옥 후보가 유효투표의 1% 이상만 얻어도 그 반사이익을 모두 이명박 후보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민노당과 이문옥 후보가 이명박 당선 저지를 위해 후보사퇴 등 용단을 내려 줄 것을 바라는 속내를 《큰 방향》 《대승적 견지》라는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이상현 대변인은 《이문옥 후보 출마가 민주당의 부패와 실정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얻던 반사이익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문옥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도와줄 뿐》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에 실망한 386세대의 표가 우리에게 오진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일단 이 후보의 출마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 측도 이문옥 후보 출마가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선거구도가 부패 대 반부패로 전선이 형성될 경우 이미 선거법 위반까지 경험하고 백억이 넘는 재산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이문옥 후보에게 의외의 역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장점으로 연륜과 기업경영 경력을 내세워 왔는데, 공직생활 30년과 서울시 감사 4년이라는 이문옥 후보의 경력은 이명박 후보의 장점을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 《옥석논쟁》이 실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과연 양강구도가 3자구도로 바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문옥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보일 것인지, 또 이 득표가 과연 이명박-김민석 구도에서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거를 치른 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손봉석 기자
2002/05/15 프레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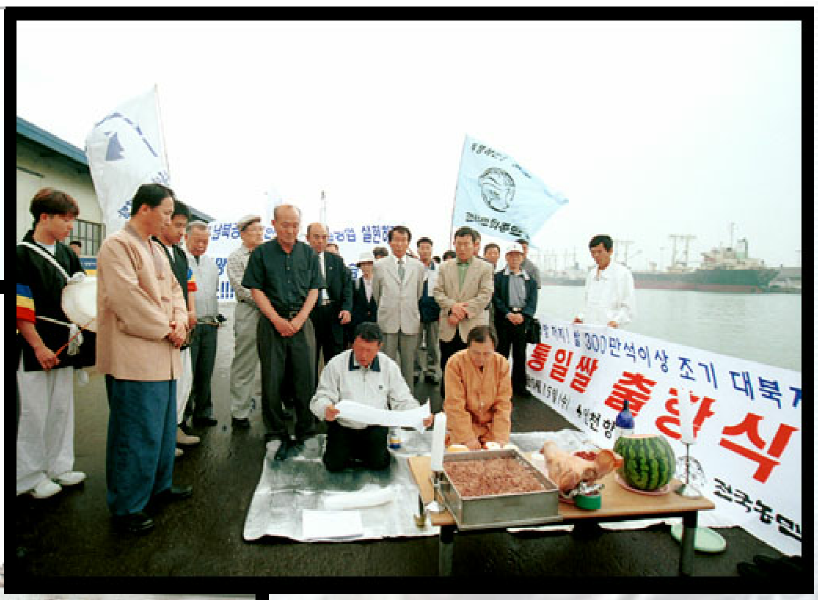
전농 《통일쌀》 출항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5일 오전 10시경 인천항 제 1부두에서 《통일쌀 출항식》을 가졌다.

전농은 지난 2일부터 1박 2일동안 《통일쌀 보내기》 전국 차량 투어를 통해 모은 쌀 160톤을 애초 오늘 출항식 후 남포항으로 보내 예정이었으나 배편이 여의치 않아 내일 오전으로 늦추었다.

한편, 전농은 1차로 내일 160톤의 쌀을 보내고 빠른시일내에 2차로 40여톤의 쌀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정미 기자
2002/05/15 통일뉴스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10)

서론

논제1-통일운동과혁명운동의성격과임무

논제2-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주체와그역할

논제3-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역량편성

논제4-조국통일운동의주체와그역할

논제5-≪두개의전선론≫에대한보완,수정

논제6-민족해방혁명의관점에서고찰한 미군철거의의의

논제7-선군혁명전략의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지향

논제8-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민주정권의지위와임무

▶ 논제9-지역통일전선의형성과 진보적대중정당의건설
-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과 진보적 대중정당
- 통일전선과 진보정당
- 통일전선운동과 사상투쟁

논제10-올해의선거정국과민족민주운동세력의대응
-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연립정권

결론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통일전선과 진보정당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국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59(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이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진보적 대중정당과 통일전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지도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국가의 창건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구국운동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렸습니다. 이 당은 광범한 민주주의력량의 통일전선적 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뭇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통일혁명당은 1980년대 중반에 작성한 문건 ≪통일전선론≫에서 합법정당도 통일전선의 한 조직형태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인 통일전선적 합법당이나 통일전선적인 군중단체는 정당, 단체들의 연합전선과 같이 그렇게 강유력한 통일전선체로는 될 수 없으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 통일전선의 합리적인 조직형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 가지 논제≫에서는 통일전선과 진보적 대중정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될 수 있으며, 또 오늘의 변화・발전된 혁명정세 속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며, 유력한 조직형태입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투쟁은 지역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는 투쟁으로 됩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그러나 지역통일전선조직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병존하여 건설하고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과업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신식민지에서 정권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힘을 합해 미제의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통치기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조건에서 지역통일전선이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통일전선적 정당이 통일전선조직보다 더 유리한 것은 자명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자주적 민주정권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을 떠나서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논할 수 없습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진보적 대중정당이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라면, 자주적 민주정권은 지역통일전선을 모체로 하여 수립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각 정파들이 연대・집결된 운동권의 정당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주축으로 하여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연대・집결된 대중정당, 다시 말해서 지역통일전선의 광대한 대중적 정치기반 위에 건설되는 통일전선적 합법정당입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단결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근본원인은,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이 자기의 영도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이 연합・단결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중심에 확고히 서야 하는데 아직 우리 운동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이 연합・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 작용하기 힘들게 되며, 따라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연합・단결을 실현하는 과업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과업을 동시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지난 시기 혁신정당, 진보정당, 중간정당, 대중정당, 합법정당이라는 각이한 명칭을 제시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던 까닭은, 물론 적대세력의 악랄한 탄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체적 조건에서의 원인은 당건설의 주체에게 정당 건설의 사상적 기초, 정치적 기반, 조직적 전망이 부재했거나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건설의 지도핵심세력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고, 지역통일전선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축성하지 못했으며, 당건설사업의 조직적 전망에 대한 인식이 부실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그러나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지역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고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로 건설되는 정치조직이며, 또한 신식민지의 각이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당적 체계로 통합하고 조직화한 정치조직입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신식민지의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 가운데 비록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선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민족자주적 속성, 민주개혁적 속성, 통일애국적 속성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는 세력이라면 그 속성을 연결고리로 하는 지역통일전선의 개방된 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운동권 내부의 정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회정치세력들과 손잡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일보 전진하는 거대한 대오를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통일전선전략의 요체이며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인민대중 속에 분산・잠재되어 있는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집약・분출시킴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 민족반역자들을 고립・타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투쟁의 목표입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첫째, 합법정당은 통일전선의 한 형태이다. 통일전선의 존재방식, 조직형태는 다양하다. 우선 통일전선의 조직형태는 단일조직형태와 연합전선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단일조직형태는 대중조직형태와 합법정당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통일연대, 민중연대는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조직이고 각계각층 청년대중을 망라하는 청년단체는 단일조직형태이며 대중조직형태의 통일전선조직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단일조직형태이며 합법정당형태의 통일전선조직이다.

둘째, 진보적 대중정당의 본질은 통일전선조직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단일조직형태이며 합법정당형태의 통일전선조직으로서 합법정당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은 통일전선조직인 것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묶어세우는 통일전선조직이다. 오늘의 정세조건에서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으로도, 더 큰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으로도 진보적 대중정당이 가장 적합하다. 참고로 진보적 대중정당이 ≪정당≫명칭이지만 통일전선조직인 데 반해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전선≫명칭이지만 전위당이다.

세째, 진보적 대중정당은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다.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 중에서는 합법정당형태가 가장 우월하다. 정당조직은 대중조직이나 전선조직보다 우월한 면이 많다. 정당조직은 대중교양사업과 조직동원사업에서 뛰어난 기능을 발휘한다. 더 큰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는 데서도 정당조직은 조건이 좋다. 선거와 의회를 활용하는 측면과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실현하는 측면은 정당조직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통일전선을 진보적 대중정당의 형태로 건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편 오늘 식민지(남측)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은 현실로 존재하며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건설중인 진보적 대중정당은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고 있고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의 결의로 건설되었으며 나날이 장성발전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오늘 지역통일전선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가능한 것이다.

네째, 진보적 대중정당은 더 큰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이다. 지금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더 큰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는 주체세력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본질상 통일전선조직으

로 출발하지만 더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임무 중의 하나로 삼는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더 큰 지역통일전선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며 자주적 민주정권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은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인 것이다.

다섯째, 지역통일전선전략이자 진보적 대중정당전략이다. 지역통일전선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존재하고 진보적 대중정당은 더 큰 지역통일전선을 건설하는 주체세력이며 더 큰 지역통일전선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직접적 담당자는 진보적 대중정당이며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더 큰 지역통일전선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더 큰 지역통일전선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며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구성하는 직접적 담당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목표, 과정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목표,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역통일전선전략이 곧 진보적 대중정당전략인 것이다.

여섯째, 전위조직은 진보적 대중정당의 영도적 구심체이다.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이 직접 영도할 수 없는 조건의 식민지에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구심체이다. 전위조직이 영도하는 지역통일전선의 가장 유력한 조직형태는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지역통일전선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은 진보적 대중정당의 영도적 구심체로 된다. 전위조직과 지역통일전선, 진보적 대중정당의 상호관계는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일곱째, 전위조직의 역량이자 진보적 대중정당의 역량이다. 전위조직의 역량이자 지역통일전선의 역량이며 지역통일전선의 역량이자 진보적 대중정당의 역량이다. 그러므로 진보적 대중정당의 역량은 전위조직의 역량을 반영한다. 현재까지 지역통일전선사업, 진보적 대중정당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는 적대세력의 악랄한 탄압이라는 객관적 원인도 있지만 전위조직의 올바른 노선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주체적 원인도 있다. 다시 말하여 전위조직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는 지도핵심들이 응당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민족민주세력의 지도핵심들은 전위조직이 제시한 정당건설노선을 접수하고 이를 적극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진보적 대중정당건설의 성과는 지도핵심대오가 전위조직의 방침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관철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도핵심대오는 전위조직과의 결합력을 높이며 그 과학적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진보적 대중정당건설노선은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의 일환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지역통일전선의 존재방식이며 더 큰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이다. 더 큰 지역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에 해소, 통합될 것이다. 전국적 통일전선, 지역통일전선의 건설노선은 모두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전선전략이다. 그러므로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이며 더 큰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인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노선도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다. 오늘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에 복무하는 것은 결국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전선전략, 통일혁명전략에 복무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운동과 사상투쟁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견결한 사상론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55(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다음과 같이 사상투쟁에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우리는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좌우경기회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발전하여 왔으며 승리하여 왔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그 반영으로서 노동운동 내에 좌우경기회주의가 나타나며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좌우경기회주의는 노동운동 내에 나타난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사상입니다. 그것은 두 극단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왜곡하며 혁명에 해를 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6권 ≪청봉의 교훈≫편에서 사상투쟁과 사상론자의 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그때 **김정숙**동무가 앞장에 서서 엄광호의 패배주의를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노선이나 작전적 방침과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하지 않고 견결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사상론자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 가지 논제≫에서는 통일전선운동과 사상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아직 승리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혁명의 준비기에 지역통일전선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전국적 통일전선의 축성을 위해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더 요구되지 않는 자명한 이치입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그런데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지역통일전선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기 위한 전망을 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은, 대외적으로는 혁명과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민족반역세력과의 투쟁이며, 대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다고 떠들면서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는 교조주의자들, 혁명의 길을 가로막고 개량주의, 타협주의를 설교하는 기회주의자들, 파벌의 주도권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파주의자들, 공명심과 개인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운동권 출세주의자들과의 투쟁입니다.≫(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첫째, 혁명운동은 기회주의와의 투쟁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한다. 민족민주대오내의 문제점은 모두 그릇된 사상의 발로이다. 민족민주대오를 분열시키고 지역통일전선운동을 가로막는 이면에는 기회주의가 깔려 있다. 기회주의란 본질적으로 운동대오내에 침습한 부르조아사상인 것이다.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 좌우경기회주의, 분파주의자, 공명출세주의자, 관료주의자 등은 모두 부르조아사상에 포로된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과의 사상투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통일전선운동은 지역통일전선을 확대강화하는 운동이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은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확대하며 강화하는 운동이다. 이는 지역통일전선운동을 조직적 측면에서 고찰한 내용이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은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인 반민족반민주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다. 이는 지역통일전선운동을 투쟁대상과의 측면에서 고찰한 내용이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은 미군철거,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 운동이다. 이는 지역통일전선운동을 투쟁과제의 측면에서 고찰한 내용이다. 이처럼 지역통일전선운동은 어떠한 관점, 각도에서 고찰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세째, 지역통일전선운동은 대내적으로 기회주의자들과의 사상투쟁이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은 대외적으로 대적투쟁이며 대내적으로는 사상투쟁이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은 대외적으로는 통일혁명의 대상인 미제국주의, 민족반역자들과의 투쟁이지만 대내적으로는 기회주의자들, 운동권의 외피를 쓴 부르조아사환군들과의 사상투쟁인 것이다. 오늘 지역통일전선운동의 최대걸림돌인 기회주의자들을 꼽으면,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한다면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인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는 교조주의자, 개량주의, 타협주의를 설교하는 우경기회주의자, 패거리를 무어 주도권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파주의자, 공명심과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운동권출세주의자를 들 수 있다. 오늘 이들 기회주의자들과의 사상투쟁으로 제압하지 않고서는 지역통일전선운동이 장성발전할 수 없다.

네째, 지역통일전선운동이자 우리 시대의 사상운동이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전선전략, 통일혁명전략의 일환이다. 우리 시대의 주체주의자, 사상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전선전략, 통일혁명전략을 관철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전사이다. 지역통일전선운동의 성과여부는 기회주의자들과의 사상투쟁을 어떻게 전개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지역통일전선운동을 훼방하는 온갖 기회주의자들과의 사상투쟁은 사상론자들의 최대임무로 된다. 우리 주체의 사상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혁명전략, 통일전선전략을 훼방하는 온갖 기회주의자들과의 사상투쟁에서 한치의 타협도 주저도 없이 가장 철저하고 가장 치열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